

서 평 지

서평 제목	사랑, 목격자가 없는 진실	참가번호	2023-01
도 서 명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확 인	기재하지 마세요

※ 서평지 2매, 글자수 1,500자 이상(공백제외) 작성
 ※ 함초롱바탕, 폰트크기(11pt), 줄간격(160%)

책 제목에 있는 가벼움이라는 단어와 달리 책을 읽고 난 후 나에게 무거움이 짙게 남는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 책이 담고 있는 깊은 부분까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단순한 연애소설로 치부하기엔 담고 있는 메시지가 많다. 메시지를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작가 밀란 쿤데라의 사상과 가치관을 이해해야 했다. 이해에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발견해야만 하는 소설이다.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온전히 나의 글에 담기에는 버겁다고 느낀다. 이 버거운 마음의 무게가 상당하였다. 하지만, 인간과 그들의 관계, 사상과 체제, 키치적 사고의 명암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어느 날, 이상성욕을 지닌 토마시에게 사랑스러운 여자가 나타난다. 테레자는 토마시의 가벼운 모습을 완전히 바꾸어놓았다. 그는 여자에 대한 색욕을 관두고 테레자 곁에 머무는듯하였지만, 토마시에게 그 사랑의 무게가 부담스러웠는지 테레자에게 상처로 되갚는다. 토마시라는 존재의 가벼움에 단순한 남녀의 치정 소설로 볼 수는 없었다. 그 이유는 시대적, 역사적 현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의 존재가 가볍게 느껴지지 않게 하는 장치가 된다. 주인공들에게서 육체적 사랑, 정신적 사랑, 그리고 심리적 가벼움, 심리적 무거움을 동시에 느끼게 한다. 보헤미아 역사 속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매개로 가벼울 것만 같은 인물의 무거운 선택, 무거움을 통해 역설적으로 평온함을 얻는 인물 그리고 키치에 대한 정의를 이어간다.

삶은 항상 밑그림과 같다. 한 번만 산다는 것은 전혀 살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은 무엇을 희구해야만 하는가를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사람은 한 번밖에 살지 못하고, 전생과 현생을 비교할 수도 없으며, 현생과 비교하여 후생을 바로잡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희구, 즉 바라고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과 같으며 동시에 그 방향과 인생의 흐름을 아는 것이다. 하지만, 전생과 현생을 비교할 수 없기에 그것이 옳은지 알 수 없다. 우리는 늘 인생에서 후회를 덜기 위해 자신의 주관, 신념, 소망 등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것이 인생에서 정답에 가까운지 비교할 대상이 필요하다. 자취를 시작할 때 내가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남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지 보는 방법이 가장 빠를 것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 시간을 과거로 돌린다고 한들, 누구든 0에서 시작하기에 선택의 순간이 닥치면 무수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결국 과거들은 그때 가장 최선이었던 의미이다. 인간의 존재는 참을 수 없이 가볍다. 어느 가정도 증명될 일이 없으며 우리는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 책에서 동정심(흔히 일컫는 동정심과 다른 의미)보다 무거운 것은 없다고 하였다. 그렇기에 동정심에서 피어나거나 그것이 살짝이라도 곁든 사랑의 무게는 무겁다. 여기에서 무거운 사랑만이 진짜라는 것은 아니다. 그저 수많은 사람 중에 무게가 나갈 뿐이다. 그래서 주인공은 그 무거움으로, 즉 사랑으로 가져가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지나치게 극적이거나 진지한

서평 제목	사랑, 목격자가 없는 진실	참가번호	2023-01
<p>이야기로 보인다. 매우 그럴듯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그들의 이야기를 사랑으로 지칭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주인공인 테레자는 필연적인 것만 진정한 것이고, 묵직한 것만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과연 묵직한 사랑만이 운명적인 사랑일까? 이 물음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며 답을 구해볼 과제로 다가왔다.</p> <p>반면, 토마시는 테레자가 자신을 향해 의지하고 있는 모습에서 자신의 가치를 느낀다. 그에게 사랑은 결국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사람에게 하는 행위일 뿐이다. 하지만 토마시가 자신의 집에 테레자를 들이며 그동안 지켜온 선을 깨트리는 사건은 그녀의 사랑을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싶다. 이들의 로맨틱하기도 하고 아이러니한 사랑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당신 힘을 가끔 내게 쓰지 않는 이유가 뭐야?”라는 물음에 “사랑한다는 것은 힘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지.”라고 답한다. 여기에서 힘은 물리적인 힘만이 아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 무언가를 포기하는 힘, 연인을 위한 마음 그 모든 것이 해당한다.</p> <p>소련이 체코를 점령하였다. 토마시와 테레자는 스위스로 망명을 떠난다. 얼마 가지 않아, 테레자는 프라하의 봄을 쫓기 위해 프라하로 혼자 돌아간다. 토마시는 흥가분함을 만끽하다가도 돌아가야 한다는 운명의 목소리로 테레자를 따라나선다. 인물들의 행위에서 그들의 가벼움과 무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테레자와 재회를 한 뒤 곧바로 후회하는 토마시에게, 참기 어려운 추락 욕구를 느끼다 프라하로 돌아간 테레자에게서 양극단의 성질을 느꼈다.</p> <p>죽음은 그저 죽음이다. 이에 대해 여러 이름으로 불리고 감정을 덕지덕지 붙이는 행위는 말 그대로 호들갑 그 자체이다. 죽은 것은 그저 죽은 것이며, 어떠한 의미나 감정이 아니다. 그 사람과의 기억을 가지고 살아갈지 잊을지 정하는 것도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그저 지금 살아가고 또 살아지는 것이다. 죽고 나서 말한들 죽고 나서 기억한들 죽고 나서 달라진들 죽은 이는 더 이상 말이 없고, 이미 우리 곁을 떠났다. 죽음에 대한 상실과 슬픔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주거나 감정을 쥐여주는 것은 아니다. 죽음은 죽은 일이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테레자가 토마시의 죽음으로 사랑을 깨닫는다. 여전히 사랑의 답이 양극단의 인물이 만나 사랑을 말하는 부분들에서 이게 바로 사랑이 아닌가 싶었다. 정답은 없고, 수많은 답이 모두 서로에게 답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아이러니로 가득하다. 무언가를 가볍고도 무겁게, 때로는 농담처럼 때로는 진지하게 살아간다. 소설 후반부에서 나도 테레자와 함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다.</p>			